



REVIEW OF OPERATION

CJ제일제당 매출 구성 _ 2011년 연결기준 (억원)

- 식품 대형 브랜드 육성 및 핵심제품 시장점유율 확대
- 신소재 식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지속



55.8%

36,478

CJ

65,382



26.6%

17,417

-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



17.6%

11,487

- 현지화, 세계화된 사료기술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식품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해온 CJ제일제당은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식품 산업을 개척해왔으며, 50여 년 동안 소재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해왔습니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소재식품 부문에서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다시다, 산들애, 햇반, 해찬들, 행복한 콩, 프레시안, 인텔리 등 수많은 히트상품을 출시해온 가공식품 부문에서는 웰빙 트렌드와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소재식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를 생산하는 소재식품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재식품에서 기능화, 고급화된 고객지향적 제품을 출시하여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설탕 부문에서는 자일로스, 타가토스, 올리고당 등 기능성 특수감미료를 개발하고 밀가루 부문에서는 홈베이킹을 위한 다양한 프리믹스 제품을 출시하여 제품을 다양화, 고급화 하고 있습니다. 유지 부문에서는 고급유, 기능성 유지 등 업소 전용유 제품을 강화하여 B2B 부문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트랜스지방을 없앤 TFO(Trans-Fat Free Oil)제품과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 고급 유제품들이 큰 호응을 얻어 시장지위 1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자일로스 공장은 세계최초로 크코넛셸에서 자일리톨의 원료인 자일로스를 생산하는 설비로 세계 제1의 자일로스 생산기지인 동시에 신소재 사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CJ제일제당 매출 비중

(단위: 억원)

2011



■ 식품 ■ 생명공학 ■ 사료

가공식품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다시다, 장류, 스팸, 햇반, 등 주요제품이 시장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두부, 육가공 등 신선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Only One’ 제품 전략을 통한 제품 차별화

CJ제일제당은 건강과 편의추구라는 사회적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고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인 햇반은 뛰어난 맛과 품질,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시장점유율 1위를 확고히 지키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햇반의 뒤를 이어서 건강 및 편의를 컨셉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차별화된 원료와 제조 공법으로 맛과 품질을 구현한 커리 제품 등이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시장을 선도

국내 건강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강식품 부문은 인삼류, 다이어트 제품, 종합영양식 등 기능식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삼, 홍삼, 수삼 등을 통째로 갈아 넣은 한뿌리는 2004년 출시 이후 한결 같은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최초로 히알루론산 피부보습 소재 개별인정형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너뷰티푸드 브랜드인 ‘이너비’를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분만 아나나 전립선(전립선 건강보조제), 아이시안(눈건강 보조제) 등의 제품은 시장에서 선두의 위치에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문화를 개척하고 있는 행복한 콩

신선식품 부문에서는 두부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냉장 유통되는 신선식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00% 국산 콩을 사용하여 후발주자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프리미엄 두부 시장을 선도해온 행복한 콩 두부는 2011년에도 시장점유율 27%이상을 유지하며, 신선식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생식두부, 다이어트 두부 등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 두부의 개념을 건강 식재료에서 더 나아가 식사 대용식, 다이어트식으로 확대, 발전 시킴으로써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



無 소포제, 無 유화제로 만든 깨끗한 두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요리의 **즐거움**이 있는 깨끗하고 맛있는 두부, 행복한 콩은 행복한 식탁을 만듭니다.
 첨단기술로 구현한 깔끔한 포장은 요리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생명공학

제약

CJ제일제당의 제약 부문은 198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 한일약품을 흡수 합병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 미국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cGMP 공장을 2010년 완공하였습니다.

CJ제일제당 제약부문은 1)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치료제, 항암제, 만성신부전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전문약품 2)수액제, 항생제 등 기초약품 3)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일반약품 4)숙취해소드링크 및 기능성 음료 등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있는 성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신경 줄기세포 전문기업인 뉴랄스팀에 투자하는 등 줄기세포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속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 세포치료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CJ제일제당은 1964년부터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이래 식품첨가물인 MSG와 핵산을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온 핵산은 2007년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1년 말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신 또한 생산기술혁신 및 중국과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세계시장 정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D를 통해 제품 Portfolio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0년 7월말부터 고부가가치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생산 개시하였고 양계사료용 제 1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존의 화학적 공법이 아닌 자연친화적 미생물 발효공법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말레이시아에 공장 설립을 결정, 2014년 출시 예정입니다.



글로벌 No.1 바이오 업체

당사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R&D 기술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온 결과, 핵산 세계 1위, 라이신 세계 2위의 위상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미생물 발효산업 분야의 Global No.1이 된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료

CJ제일제당의 사료부문은 1973년 첫 제품을 출시한 이후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파트너로 성장해왔습니다. 국내 2개 공장(인천,군산)에서 양돈, 축우, 양계 등 일반가축 사료는 물론 양어와 애완동물을 위한 특수사료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배합사료 업계 최초로 농림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및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양돈, 축우, 양계, 양어, Pet Food 등이 다양한 상품 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인 사료사업 외에도 양돈계열화 사업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경쟁력 있는 축산전문성과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Only-One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에는 홍콩의 CJ 글로벌홀딩스를 인수하여 미래 해외 사료 부문 확장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료



계열사

국내 식품 계열사

영우냉동식품, CJ SeaFood 등 국내 계열사는 CJ제일제당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부문의 시너지 확대를 위하여 전분당 사업을 전개하는 신동방CP와 액젓류 1위 업체인 하선정종합식품은 2011년에 CJ제일제당으로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게맛살, 어묵 등 수산가공제품을 생산하는 CJ SeaFood는 웰빙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식품 계열사

글로벌 진출 원년이었던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식품 부문의 해외 시장 진출은 단숨에 수출의 개념을 넘어 우리 식문화를 세계화 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1996년부터 사업을 전개해온 중국 시장에서는 닭고기 다시다, 카레, 장류 등 조미가공식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중국 북경의 최대 두부회사인 '얼상그룹' 과 함께 합작회사인 '얼상CJ' 를 설립하고 '바이위두부' 라는 브랜드로 두부를 생산, 판매하며 현지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2011년 일본 식품 업체인 에바라와 일본에 JV를 설립하여 (Ebara CJ Fresh Foods) 김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는 2005년 아시아식품 전문회사 애니천에 이어 2006년에는 냉동식품회사 옴니를 인수, 레토르트밥, 소스, 냉동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장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코넛셸(shell)을 원료로 하여 기능성 감미료인 자일리톨의 주원료인 자일로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오 계열사

인도네시아 파수루안/솨방과 중국 요성, 브라질 비라시까바 등 대표적인 원료 산지에 위치한 바이오 계열사에서는 식품 첨가물인 핵산과 MSG, 사료 첨가물인 라이신, 쓰레오닌, 트립토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발효기술과 대량생산 경험, 글로벌 사업 노하우, 원가 경쟁력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 2011년 현재 핵산사업에서는 세계 1위, 라이신 사업에서는 세계 2위권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34만 톤의 라이신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 계열사는 뛰어난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시설투자 및 기업투자를 통하여 세계 1위의 라이신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양계사료용 제 1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의 생산 시설을 완공하여 제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식품

CJ Sea Food | 슈퍼피드 | CJ엠디원 | 신의도천일염주식회사 | 돈돈팜 | 영우냉동식품

해외식품

CJ Beijing Beverage | CJ Qingdao Food | Beijing Ershang CJ Food | CJ Omnifood | CJ Nutracon | Ebara CJ Fresh Foods

해외바이오

PT. CJI | CJ Liaocheng Biotech | Liaocheng Lantian Cogeneration Plant | CJ Do Brazil

해외기타

CJ America | CJ China | CJ Europe | CJ International Trading | CJ Global Holdings